

이탈리아, 프랑스, 스페인: 신선 과일류 수요 Top3

유럽에서 이탈리아, 프랑스, 스페인이 신선 과일류와 관련, 가장 많은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세 국가의 신선 과일류 수요는 유럽연합 국가 중 약 70%를 차지하고 있다고 SIPPO(스위스)의 Eduard Bloch가 '제 8회 2011 우크라이나 국제 과일&채소 컨퍼런스'에서 언급하였다. Bloch씨는 또한 이 세 국가가 EU에 공급하고 있는 신선 채소량은 약 55%라고 덧붙였다.

특히 토마토 생산량은 EU에서 거래되는 신선 야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(30%)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, 과일류 중에서는 사과(29%), 오렌지(22%)가 차지하였다.

Bloch씨는 우크라이나의 체리, 자두 장과류 등이 EU에 수출할 만한 전망 있는 품목이라고 언급하며 아스파라거스, 씨 없는 멜론 등도 인기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.

정보제공: www.freshplaza.com (lol.org.us)

Issue date: 2011/12/06